# 덕 윤리에 대한 비판과 그 고유성에 대한 해명

장동익*

**【요약】**

앤스콤이 선, 성품과 같은 아리스토텔레스적 개념을 도덕 철학의 중심 관심사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로, 덕 윤리는 많은 주목을 받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덕 윤리에 대한 통일된 설명이나 해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의는 덕 윤리의 공통된 특징을 통해서 덕 윤리의 고유한 특징을 해명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덕 윤리에 대한 관심이 재등장하게 된 연유와 그 원인을 서술하였다. 또한 덕 윤리가 주장하는 두 가지 모습, 즉 적극적 방법과 소극적 방법을 설명하면서 이들의 방법이 덕 윤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비판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칸트주의와 공리주의는 덕 윤리가 강조하고 있는 성품을 자신들의 이론 안에서 충분히 반영하지도, 더구나 승인하지도 못한다는 것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덕 윤리가 칸트주의 윤리나 공리주의 윤리 그리고 여타의 윤리들과는 다른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보이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덕 윤리에 제기되는 비판을 재점검하여 이에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덕 윤리 자체의 성립 가능성을 옹호하였다.

【주제어】 덕 윤리, 의무 윤리, 칸트주의, 공리주의

---

* 공주교육대학교 초등윤리교육과

# Ⅰ. 서론

오랜 동안 관심에서 멀어져 있던 덕 윤리가 많은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또한 덕 윤리학이 다시금 주목 받게 된 것에 대해 현대 윤리학의 가장 특징적인 진전, 또는 발전이라고 평가하는 윤리학자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윤리학자들이 덕 윤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며, 이에 대한 논의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는 하다. 실제로 많은 윤리학자들이 덕 윤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덕 윤리학적 논의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표되는 덕 윤리적 저술이나 논문을 보더라도 덕 윤리에 대한 관심이 커졌으며, 적어도 커져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임에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덕 윤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윤리학자는 거의 없었다. 사실상 덕 윤리는 근대 윤리학 속에 그 흔적만을 남긴 채 온전한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덕 윤리는 서양 고대 철학의 번성과 더불어 성숙되었다가 근대 이후 그 자취를 감추었었기 때문이다.

서양의 윤리학자들은 근대 윤리학의 관심사였던 행위의 옳고 그름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질 뿐이었고, 더구나 덕 윤리에 대한 무관심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로 간주되어 왔다. 칸트주의 윤리와 공리주의, 그리고 이들에서 파생된 이론만이 윤리 이론으로서 탐구할 가치를 가질 뿐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윤리학의 진정한 문제는 윤리적 개념 분석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고 믿는 일군의 학자들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인식이 덕 윤리를 등한시하고 소홀하게 다루는 원인이 되었다.[1)]

그러나 앤스콤이 선, 성품과 같은 아리스토텔레스적 개념을 도덕 철학의 중심 관심사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로[2)] 근대의 두 규범 윤리, 즉

1) 물론 이러한 인식만이 덕 윤리에 대한 탐구를 등한시 하게 된 원인은 아니다. 덕 윤리가 쇠퇴하고 근대적 방식의 윤리가 등장하게 된 것은, 고대의 소규모 공동체 사회에서 근대의 대규모 시민사회로 이행되고, 덕 윤리가 대규모 시민 사회의 윤리적 삶에 적합한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들이 있다.

칸트주의 윤리와 공리주의 그리고 메타 윤리에 대한 탐구만이 윤리학의 진정한 탐구라고 생각하는 윤리학의 탐구 경향에서 방향을 전환해, 아리스토텔레스와 그에 따른 덕 윤리학에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덕 윤리는 자신의 근거를 찾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다.

덕 윤리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덕 윤리가 무엇이며, 전체적인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지에 관하여 다양한 제안들만 제시되었을 뿐, 통일된 설명이나 해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덕 윤리에 대한 전체적인 체계를 구성하려는 노력이 없지는 않았지만, 이들 역시도 덕 윤리에 대한 통일된 이해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단지 스스로를 덕 윤리라고 부르는 다양한 윤리 이론들이 상이한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실제로는 이렇게 제시된 덕 윤리 형식들은 너무도 다양하고 상이해서, 자신들의 주장이 아니라면, 그 윤리 이론들이 덕 윤리인지 명료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을 정도이다.

덕 윤리가 하나의 규범 윤리 이론으로 공리주의와 칸트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공고히 하려면 덕 윤리가 과연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고서, 통일된 체계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덕 윤리를 강력한 규범 윤리 이론으로 정립하려는 덕 윤리학자들의 전반적인 계획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상이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되는 덕 윤리의 본질적 특징들을 이끌어 내서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 덕 윤리학자의 본질적 작업을 규명하려는 작업은 상당히 희망적이다. 비록 덕 윤리가 다양하고 상이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기는 할지라도, 덕 윤리로서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본 논의는 덕 윤리의 공통된 특징을 통해서 보다 명료하고 특이적인 덕 윤리의 고유한 특성을 해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보다 충실하기 위하여, 먼저 덕 윤리가 가지는 일반적 특성을 제시할 것이다. 필자는

2) G. E. M. Anscombe, "modern moral philosophy," *philosophy* 33(1958).

덕 윤리의 일반적 특징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덕 윤리에 대한 관심이 재등장하게 된 연유와 그 원인을 서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윤리 영역에서는 인간의 성품, 즉 덕에 관한 해명과 체계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덕 윤리가 자신의 특징을 드러내는 두 가지 방법, 즉 적극적 방법과 소극적 방법을 비교하여, 이들의 방법이 덕 윤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성공적인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각각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볼 것이다. 그런 연후에, 칸트주의와 공리주의가 인간의 성품을 자신들의 이론 안에서 충분히 반영하지도, 더구나 승인하지도 못한다는 것을 고찰할 것이다. 이런 해명을 위해서는 덕 윤리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의무 윤리(duty ethics)의 특성[3], 즉 칸트주의 윤리와 공리주의 윤리의 특성을 덕 윤리의 특성과 비교하여, 의무 윤리가 덕 윤리의 어떤 특성을 승인할 수 없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덕 윤리에 제기되는 비판을 재검토하여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덕 윤리 자체의 성립 가능성을 옹호할 것이다. 이런 논의 과정을 통하여 보다 명료하고 특이적인 덕 윤리의 본질적 특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으로 생각한다.

## Ⅱ. 덕 윤리의 재등장 원인

덕 윤리에 대한 관심이 재등장하게 된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들이 제시되고 있다.[4] 첫째, 근대 이후 도덕 철학은 덕 개념과 관련된 도덕적 숙고에

3) 여기에서 말하는 '의무 윤리'(duty ethics)는 칸트주의 윤리를 통상적으로 칭하는 바를 지칭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의무 윤리'(duty ethics)는 칸트주의 윤리와 공리주의 등, 의무나 책무(duty or obligatory)의 개념을 중심 개념으로 여기는 모든 근대 이래의 모든 행위 중심 윤리 이론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4) 덕 윤리에 대한 관심이 재등장하게 된 원인이 세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덕 윤리학자들은 나름대로 그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다. 왜냐하면 덕 윤리의 재등장이 함축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거의 모든 덕 윤리학자들은 여기에 제시된 3가지 원인을 덕 윤리의 재등장에 대한 원인으로 가장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충분히 주목하지 못하였으며, 이 때문에 도덕 철학적 논의가 불완전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근대 이후 도덕 철학은 가장 추상적인 어휘, 즉 '옳음', '좋음', '당위'와 같은 어휘에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감수성 있는', '동정', '용기'와 같은 보다 풍부하고 구체적인 어휘를 무시하고 있다. 덕 윤리학자들은 인간 삶의 도덕적 영역은 '옳음', '좋음', '당위'와 같은 추상적인 어휘보다는 '감수성 있는', '동정', '용기'와 같은 어휘에 의해 보다 더 잘 해명되고 파악된다고 생각한다. '감수성 있는', '동정', '용기'와 같은 어휘는 덕과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어휘가 덕 윤리를 향한 출발점이 된다.

둘째, 많은 윤리학자들은 진정한 윤리 이론이란 덕을 이론의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어떤 윤리 이론이 덕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 이론은 윤리 이론이 되기에는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덕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 윤리 이론이 되기에 충분한 조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덕에 대한 설명을 구체화하지 못하는 윤리 이론은 결함을 가진 이론이라 할 수 있다.[5] 그런데 공리주의와 칸트주의 윤리학이 덕에 대해 충분히 다루고 있지 않으며, 그나마 그들의 덕에 대한 설명조차도 아주 조잡한 설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6] 이러한 인식을 통해 덕에 대한 훌륭한 설명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윤리 이론이 필요하며, 이러한 윤리적 탐구가 온전한 윤리 탐구의 길이라고 여기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셋째, 규범 이론은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평가를 통한 윤리적 평가 체계보다 성품 평가를 통한 윤리적 평가 체계를 더욱 기초적인 것으로 삼아야 한다. 즉 윤리적 평가에서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평가보다는 성품에 대한 평가가 더욱 기초적인 것이다. 이에 대한 자각이 덕 윤리학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가장

5) 윌리엄 프랑케나, 황경식 역, 『윤리학』(철학과현실사, 2003), 148.

6) 공리주의와 칸트주의가 덕에 대한 설명에 관심을 전혀 가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윤리학 내에서 덕에 대한 위치와 역할, 그리고 그 중요성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의무의 개념에만 치중한 나머지 덕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하였다. 이들은 덕을 최대의 선을 낳게 하는 성품이거나, 의무를 실행하게 해주는 성품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강력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부르거나 말하기 위해서는 성품의 내적인 상태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성품에 대한 내적인 상태가 윤리적 평가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것이다. 물론 성품이 행위를 통해 표현되기는 하지만, 행위의 선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은 성품이다. 정의로운 사람의 행위를 정의로운 행위라고 말하듯이, 한 행위가 용기 있는 행위자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인 경우에, 그 행위를 용기 있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적대로, 한 마리의 제비가 봄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덕 윤리에 대한 관심이 재등장하게 된 이유로 제시된 이러한 세 가지 점은 우리가 탐구해야 할 윤리적 과제를 말해주고 있다. 즉 '어떤 행위를 행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주된 관심을 갖기 보다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리학에서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특정한 상황에서 그 상황에 맞는 특정한 행위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그 상황에 적합한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성품은 상황에 적합한 행위를 유도하는 인간의 내적 성질이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올바른 방식으로 반응하는 성품이 바로 덕이다. 그렇다면 덕이란 인간이 인간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자 한다면, 즉 삶의 목적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소유해야만 하는 성품이다.

행위자의 내적인 성품 평가가 행위 평가보다 우선한다는 것이 덕 윤리학의 재등장을 촉진한 가장 결정적 요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덕 윤리만이 행위자의 성품 평가를 중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일견 합당한 듯이 보인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윤리 이론들이 행위를 평가할 때, 행위자의 내적 상태에 대한 평가를 고려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인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어떤 행위자가 동일한 값의 유용성을 산출하는 경우에, 공리주의 또한 타인에게 이익을 주려는 행위자와 타인을 해치려는 행위자를 다르게 평가하려 할 것이다. 또한 칸트주의 윤리 또한 도덕적 판단의 기초를 전적으로 행위자의 내적인 상태에 두려고 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

면, 새삼스럽게 덕 윤리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덕 윤리가 여타의 규범 윤리들보다 한결 나은 이론이라고 주장하며, 덕 윤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덕 윤리의 특징이 다른 윤리, 즉 공리주의나 칸트주의 윤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는 덕 윤리만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듯하다. 왜냐하면 덕 윤리가 행위 평가보다 내적인 성향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는 하지만 덕 윤리가 여러 가지 점에서 공리주의나 칸트주의 윤리와 본질적으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덕 윤리를 옹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칸트주의 윤리와 공리주의가 행위자의 내적인 성향에 대한 평가를 무시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들은 덕 윤리와는 달리 성품에 대한 평가를 행위 평가에서 파생된 것으로 여길 뿐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예를 들면, 공리주의도 행위의 결과가 동일할 때, 악의를 가진 사람보다는 자비로운 사람을 칭찬할 것이지만, 그 이유는 덕 윤리에서와 매우 다르다. 공리주의가 이들을 칭찬하는 이유는 자비가 악의보다 일반적으로 많은 유용성을 산출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공리주의가 자비로운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 때문이 아니라, 그 성향이 가져올 결과 때문인 것이다.

칸트주의 윤리와 덕 윤리의 특성을 비교하는 것은 공리주의와 덕 윤리 비교만큼 선명하게 해명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덕 윤리가 행위자의 내적인 심적 상태, 즉 성품을 강조하는 것은 칸트주의 윤리가 내적인 심적 상태를 강조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은 확연해 보인다. 왜냐하면, 칸트주의 윤리가 내적인 심적 상태를 행위와 행위자의 가치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여긴다 할지라도, 행위의 옳음과 관계하는 내적인 심적 상태만 도덕적 가치 결정의 요인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칸트가 중요시하는 내적인 심적 상태는 행위를 옳게 만들어 주는 보편성을 이해하고 행위의 보편성을 고려하는 내적인 심적 상태이다. 칸트에게 있어서 내적인 심적 상태가 행위의 옳음을 평가하기 충분한 조건인 것도 아니다. 또한 행위만이 그 행위의 옳음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인 것도 아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덕 윤리에서는 행위자의 내적 성향 또는 내적인 심적

상태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만 행위의 도덕적 가치 평가가 가능하다. 덕 윤리에 있어서 행위자의 내적 성향 또는 내적인 심적 상태에 대한 평가는 행위의 옳음을 결정짓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다.

## Ⅲ. 덕 윤리가 제기되는 방식

덕 윤리가 재등장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덕 윤리에 대한 논의도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되어 왔다.[7] 그러나 수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덕 윤리의 고유한 특성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들이 있어 왔다. 이러한 비판은 덕 윤리 형식들에 대한 논의의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덕 윤리의 형식들이 다양하고 활발하게 제기되었기 때문에 더욱 큰 힘을 얻고 있다. 왜냐하면, 덕 윤리가 어떤 특징을 갖는지 분명하게 논의되지 않은 채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되어, 어떤 윤리 이론이 덕 윤리인지 그렇지 않은지 명료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덕 윤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제기된 덕 윤리는 덕 윤리로 불리기에 합당한 공통된 특징과 형식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덕 윤리는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 첫째, 덕 윤리는 경쟁적인 포괄적인 규범 윤리 이론인 칸트주의와 공리주의에 대해 상당히 의미 있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칸트주의와 공리주의에 대한 공격적 표현 방식은 덕 윤리를

7) 덕 윤리가 자신의 모습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내용들로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를 말해 볼 수 있다.
(1) 유덕한 자가 행했을 법한 그런 행위가 옳은 행위이다.
(2) 유덕한 행위는 선을 극대화하는 행위이다.
(3) 덕을 통해 옳음을 규정할 수 있다.
(4) 덕은 행위자의 특정한 성품이다.
(5) 덕은 객관적으로 선이다.
(6) 덕은 환원되지 않는다.

옹호하는 거의 모든 학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그런 까닭에 덕을 강조하면서 칸트주의와 공리주의에 반론을 제기하는 윤리학적 태도가 덕 윤리학적 태도라고 통상 인정되고 있다. 이것은 덕 윤리가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소극적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소극적 방식을 통해서 덕 윤리는 칸트주의나 공리주의의 본질적 특징[8]을 부정하며, 칸트주의나 공리주의를 본질적 특징으로 갖는 윤리 이론은 윤리 이론으로서 적합하지도, 합당하지도 않다고 주장한다.

둘째, 덕 윤리는 윤리 평가에서 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특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도덕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유덕한 성품에 대한 평가이며, 덕 개념이 옳음 개념에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덕 윤리는 유덕한 행위자가 할 법한 행위를 하라는 명제를 행위 지침으로 제시한다. 이런 표현 방식은 자신을 표현하는 '적극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덕 윤리가 자신을 드러내는 두 가지 방식, 즉 소극적 방식과 적극적 방식은 오랫동안 덕 윤리의 핵심적 특징으로 간주되어 왔다. 어떤 이론이 칸트주의와 공리주의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면서, 덕을 윤리 평가의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이론이 덕 윤리로 분류되는 것은 당연한 것 인양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두 방식만으로 덕 윤리를 규정하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

8) 다음은 덕 윤리가 부정하고 있는 칸트주의 윤리와 공리주의의 주장들이다. 다음 중 (1)-(5)까지는 칸트주의와 공리주의가 공통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고, (6)-(7)은 칸트주의 윤리만의 주장이며, (8)은 공리주의 윤리의 주장이다.
(1) 도덕에서 가장 중요한 물음은 '행해야 할 올바른 행위 또는 의무가 되는 행위는 어떤 행위인가?'이다.
(2) 도덕 판단에서 기초가 되는 것은 행위의 옳음에 관한 판단이다.
(3) 기초적인 도덕 판단은 옳은 행위의 일반적 규칙이나 원리를 형식을 취한다.
(4) 기초적인 도덕 판단은 보편적인 형식을 갖는다.
(5) 유덕한 성품은 옳은 행위로부터 파생되었다.
(6) 기초적인 도덕 판단은 정언 명령이다.
(7) 기초적인 도덕 판단은 인간적 선에 대한 설명에 근거하지 않는다.
(8) 옳은 행위는 선을 극대화하는 행위이다.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Gregory Trianosky, "What is virtue ethics all about?"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Vol. 27, No.4(1990)을 참조.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극적 방식인 칸트주의 윤리와 공리주의에 반대하거나 비판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덕 윤리의 특징을 제시해 줄 수 없다. 보살핌의 윤리(ethics for care)나 여성주의 윤리(ethics in feminism) 역시 칸트주의와 공리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극적인 방식으로는 덕 윤리의 본질적 특성을 드러내지 못할 것이다. 덕 윤리를 보살핌의 윤리나 여성주의 윤리와 구분하지 못하는 한, 덕 윤리의 본질적 특성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지 칸트주의와 공리주의 모두에 비판적이라는 것만으로는 덕 윤리의 특징을 명료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덕 윤리가 자신을 드러내는 소극적 방식으로는 자신의 본질적 특징을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적극적 방식을 통해서 곧바로 덕 윤리의 본질적 특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합당하지 못하다. 적극적 방식은 도덕적 평가에서 성품 평가를 윤리적 작업의 핵심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칸트주의와 공리주의를 옹호하는 상당수의 학자들도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은 특정한 종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즉 칸트주의와 공리주의를 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재해석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 이러한 재해석이 성공적이라면, 칸트주의와 공리주의를 덕 윤리와 구별하여, 덕 윤리의 본질적 특성을 제시하려는 시도는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따라서 덕 윤리의 적극적 방식을 통해서 곧바로 덕 윤리의 본질적 특성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상세한 설명이 더 필요한 듯이 보인다.

물론 덕 윤리가 칸트주의와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소극적 방식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은 이해할 만하다. 왜냐하면 칸트주의와 공리주의 윤리 이론에 대한 불만이 점차로 커져갔고, 이러한 불만이 덕 윤리가 재등장하게 된 계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이러한 소극적 기술 방식은 덕 윤리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즉 덕 윤리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는 데 결함을 가지고 있다. 또한 덕 윤리가 적극적으로 표현될 때조차도, 즉 덕으로서

행위자의 성품을 강조하면서 도덕적 행위를 평가하려고 할 때조차도, 덕 윤리는 스스로를 명료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자신의 독특한 특이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덕을 강조하면서 재해석된 칸트주의 및 공리주의와 덕 윤리의 차이가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해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덕 윤리의 본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재해석된 칸트주의나 공리주의와는 다른 덕 윤리의 고유한 특징을 명료하고 특이적으로 나타내야 하거나, 또한 적어도 보편적 형식의 칸트주의와 공리주의는, 설령 이들이 덕 윤리적 방식으로 변형된다할지라도, 덕 윤리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이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9]

## Ⅳ. 덕 윤리, 칸트주의 그리고 공리주의

칸트주의 윤리와 공리주의를 덕 윤리와 대비시켜보는 것이 덕 윤리의 본질적 특성을 명료하게 드러내는 데 유익할 것이다. 덕 윤리가 칸트주의와 공리주의 둘 모두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등장하였다고는 하나, 칸트주의 윤리에 보다 더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칸트주의 윤리와 덕 윤리를 대비시키는 것만으로도 덕 윤리의 본질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부족하진 않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덕 윤리와 칸트주의의 비교를 주로 논의하고, 공리주의와의 비교는 간략하게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순수한 형식의 칸트주의 윤리에 있어서, 도덕에서 기초적인 것은 옳은 행위에 대한 판단이며, 유덕한 성품은 행위 판단을 통해서 파생되는 이차적인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도덕 판단에서 기초가 되는

9) 행위자의 성품을 강조하면서 옳은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덕 윤리의 주된 특징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덕 윤리 이해의 방향이었다. 이러한 태도가 덕 윤리가 성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특징은 잘 드러내 주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덕 윤리뿐만이 아니다. 칸트주의와 공리주의의 버전도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은 특정한 종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여가고 있다.

것은 행위의 옳음에 관한 판단이다. 그리고 (2) 유덕한 성품은 옳은 행위로부터 파생되었다.

그러나 덕 윤리에서는 덕에 대한 판단이 도덕에서 기초적이며, 행위의 옳음은 유덕한 성품에서 파생되는 이차적인 것이다. (1) 덕에 대한 판단은 행위의 옳음에 관한 판단과는 독립적이다. (2) 행위의 옳음은 행위자의 유덕한 성품에 의해 결정된다.

트리아노스키에 따르면[10], 덕 윤리가 재등장하게 된 계기를 제공한 G.E.M. 앤스콤은 칸트 윤리학의 기본 명제인, 도덕 판단이 정언 명령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거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고 한다.

> 첫째, 관심이나 욕구와 무관하게 모든 합리적 존재에 알기 쉽게 적용될 수 있는 세속적인 도덕적 당위는 있을 수 없다.
> 둘째, 모든 생명체에 적용될 수 있는 '통상적인' 당위나 규범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당위이다.
> 셋째, 우리의 선 개념은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 필요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빌어서 이해될 수 있다.
> 넷째, 한 사람이 인간답다는 것은 그의 선을 통하여 구성된다.

도덕 판단이 정언 명령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부정한다면, 이러한 주장은 자연스럽게 승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1] 덕 윤리는 이러한 주장들에 의거하고 있다.

필리파 풋 역시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한다. 풋은 비록 욕구나 관심이 충족되는지와는 무관하게 도덕적 요구조건이 행위자에게 법칙적으로 적용된다할지라도, 이런 도덕적 요구 조건은 욕구나 관심이 충족되는가와 무관한 것을 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신이 도덕적이 됨으로써 증진되는 욕구나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은 도덕적이 되어야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풋은 도덕적 요구조건에

10) Gregory Trianosky, "What is virtue ethics all about?" 336.

11) 이러한 추론 과정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해서, 논리적인 귀결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첫째와 둘째를 승인하면서도, 셋째와 넷째는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를 제공하는 힘은 항상 조건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도덕 명령은 정언명령이 아니라, 조건 명령이라는 것이다.[12] 풋의 이러한 주장은 도덕 판단에서 기초가 되는 것은 행위의 옳음에 관한 판단이 아니며, 유덕한 성품이 옳은 행위에 의해 파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풋의 견해는 많은 면에서 덕 윤리적 주장과 부합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공리주의 견해는 덕을 행위 공리주의 표준에 의해 옳은 것으로 간주된 행위를 하는 경향성이나, 옳은 것으로 간주된 행위를 하게 될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성품으로 여길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성품을 덕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그 성품을 소유하게 되면 유용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덕 윤리에 의해 승인될 수 없다. 덕 윤리에 의하면, 하나의 성품이 덕이 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그 성품에 의해 그 행위 실천이 극대화되거나, 그 행위 실천에 의해 선이 극대화되는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성품이 선을 극대화한다고 해서 그 성품이 곧바로 덕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덕 윤리에서 덕은 그 자체로 선으로 인식되거나, 자신의 행복에 이바지하는 성품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의거하여, 윤리 이론들을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류는 윤리 이론들의 본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덕 윤리의 고유한 특징을 밝히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하나는 덕 윤리와 의무 윤리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각 이론이 기초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도덕 판단이 어떤 종류인가에 따른 구분이다. 다른 하나는 윤리 이론이 목적론적인가 비목적론적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기초적인 도덕 판단이 자체적으로 정당화되는지, 파생적인지, 즉 다른 개념을 매개로 정당화되는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다.

의무 윤리에서는 옳은 행위가 무엇인가를 해명하는 일, 즉 이 옳은 행위들의 도덕적 의무나 원리를 밝히는 일을 윤리적 탐구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로

12)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Philippa Foot, "Morality as a System of Hypothetical Imperatives" in *Virtues and Vices and Other Essay in Moral Philosophy*(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을 참조.

여긴다. 그리하여 의무 윤리 이론은 윤리적 평가가 이루어질 때, 의무, 책무, 그리고 당위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며, 행위 지침에 있어서는 원리나 명령의 형태를 취한다. 반면에, 덕 윤리는 도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유덕한 성품에 대한 해명이라고 여긴다. 따라서 덕 윤리 이론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은 한 성품을 덕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무엇이며, 유덕한 성품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유덕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해명해야 할 것이다.

순수한 목적론적 윤리는 기초적인 도덕 판단이 선에 대한 설명에 의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도덕적 옳음이나 덕에 대한 언급과는 독립적으로 선을 기술할 수 있으며, 이 선에 의해 도덕적 옳음이나 덕이 결정된다. 순수 목적론적 윤리는 도덕적 가치에 대한 모든 판단이 비도덕적 가치에 대한 판단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도덕 판단이 자체적으로 정당화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면에 비목적론적 윤리는 도덕 판단이 선에 대한 고려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즉 도덕적 판단은 자체적으로 정당화된다. 도덕 판단이 선에 대한 고려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비목적론적 윤리의 핵심적 특징 중의 하나이다.

목적론적 윤리와 비목적론적 윤리의 기초적인 도덕 판단이 자체적으로 정당화되는지 또는 다른 개념을 매개로 정당화되는지에 관한 논의 방식에 따라서 덕 윤리를 구분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즉 목적론적 덕 윤리와 비목적론적 덕 윤리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목적론적 덕 윤리는 선에 대한 설명에 의거하여 성품이 유덕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선을 극대화하는 성품을 덕으로 여길 것이다. 그리고 유덕한 사람은 선을 극대화하는 사람이다.

반면에 비목적론적 덕 윤리는 유덕한 성품에 대한 판단이 선에 대한 설명에 기초하지 않고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특징에 의해 비목적론적 덕 윤리는 공리주의 형식과는 다른 길을 걸을 것이다. 비목적론적 덕 윤리는 의무론적 윤리와 유사한 점을 갖는다. 즉 기초적인 도덕 판단은 자체적으로 정당화된다. 비목적론적 덕 윤리의 대표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완전주의이다. 완전주의는 덕이 선을 증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선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생각한다. 즉 기초적인 도덕 판단은 인간의 선에 대한 설명에 근거하지 않는다.

## V. 덕 윤리의 본질적 특성

본 논의의 목표, 즉 덕 윤리의 본질적 특성을 보다 명료하고 특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덕 윤리 형식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덕 윤리의 본질적 특성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덕 윤리의 본질적 특징을 말하기 위해서는 특히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성품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덕 윤리의 주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덕 윤리가 주장하는 성품의 우선성은, 유덕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그 상황에서 했을 법한 것이라는 점이, 그 행위를 옳은 것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이 옳은 행위를 위한 순전한 외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주장을 외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덕 윤리의 본질적 특성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행위 실행에 있어서 어떤 동기, 기질, 성품과는 무관하게 외적인 기준은 만족될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성품을 외적 기준으로서 승인하는 것은 칸트주의나 공리주의 내에서도 정합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유덕한 행위자가 할 법한 행위를 하라'는 것이 외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이들이 주장하는 이론과 덕 윤리를 구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최근에 의무를 '유덕한 사람'이라는 개념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재해석하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허만은 행위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공해 주는 칸트의 정언 명령은 선한 행위자의 성품에 있는 규범적 기질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레일톤은 행위자에 중립적인 가치를 극대화하라는 결과주의적 요구는 선한 행위자의 성품에 있는 규범적 경향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13]

따라서 '유덕한 행위자가 할 법한 행위를 하라'는 주장이 덕 윤리의 본질적

특성으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옳은 행위 기준으로서 이것은 어떤 '내적' 기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덕 윤리적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옳은 행위를 한다는 것은 유덕한 행위자가 그 상황에서 행위 하면서 가졌을 법한 동기, 기질, 또는 성품을 가지고서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유덕한 행위자가 할 법한 행위를 하라'에서 '유덕한 행위자가 할 법한 것을 하는 것'은 행위 실천의 외적인 기준으로서 유덕한 행위자가 할 법한 행위를 실행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경향과 동기에서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올바르게 행동한다는 것은 적절한 경향성에 따라서 그리고 많은 덕들에 알맞은 동기에 의해서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가 상황에 알맞은 유덕한 경향성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상황에서 '유덕한 행위자가 할 법한 행위를 하라'는 덕 윤리의 옳은 행위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 예를 들면, 자선의 덕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복지에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자선적 경향에 따라서 행동해야만 한다.

덕 윤리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유덕한 행위자의 성품에 둔다면, 유덕한 성품의 행위자를 기초로 하여 공리주의를 이해하려는 시도와 덕 윤리를 구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공리주의식의 시도는, 행위의 최고 결과를 야기하는 행위를 옳다고 주장할 것이기에, 유덕한 행위자의 성품을 언급하지 않고서도 행위의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반면에, 덕 윤리는 유덕한 행위자의 성품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알 수 없을 것이다. 유덕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항상 최고의 결과를 갖는 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이 덕 윤리와 공리주의가 달라지는 지점이다.

칸트주의 그리고 공리주의와 덕 윤리의 차이점은 특정한 가치가 상충하는

13) Barbara Herman, *The Practice of Moral Judgment*(Harvard University Press, 1993)은 칸트주의에 덕 윤리적 관점을 수용하고 있으며, Peter Railton, "Alienation, Consequentialism, and the Demands of Morality" in *Consequentialism and its Critics* ed. Samuel Scheffler(Oxford Univeristy Press, 1988)은 공리주의에 덕 윤리적 관점을 수용하고 있다.

경우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의무나 유용성의 요구가 선하거나 칭찬할만한 친구가 마땅히 해야 하는 바의 것과 상충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오클레이는 의무나 유용성의 요구와 친구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바의 것이 상충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결혼 생활이 거의 파탄 지경에 놓여 슬퍼하는 절친한 친구를 위로하는 예를 제시하고 있다.[14] 결혼이 파탄에 이르러 실의에 빠진 친구를 위로하면서, 친구로서 그가 해야 할 의무가 요구하는 것 이상의 많은 시간을 그와 함께 보냈다. 덕 윤리학자는 친구를 위로하며 보다 오랜 시간을 그와 함께 보내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비록 그렇게 친구와 함께 함으로써 점식 먹기로 약속한 사업 동반자와의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다할지라도, 그리하여 최대량의 유용성을 극대화하지 못할지라도 이것은 옳은 일이다. 여기서 친구를 위로하는 행위를 옳게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은, 이것이 우정이라는 적절한 개념을 가진 사람이 보여주는 경향성을 가졌기 때문이지, 이것이 최대량의 결과를 낳거나 친구로서 의무이기 때문은 아니다.

그러나 얼핏 자선과 정직의 예는 '유덕한 행위자가 할 법한 행위를 하라'는 덕 윤리의 주장이 옳은 행위의 외적 표준만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충분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게 한다. 왜냐하면 이 예들은 특정한 동기나 경향성에서 행하라는 분명한 조건 없이도, 행해야할 자선적인 것이나 정직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 주며, 동기나 경향성보다도 행위의 실행 그 자체를 더욱 중시하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덕 윤리학자가 말하고 있는 '유덕한 행위자가 할 법한 것을 하라'는 주장은 단지 외적인 표준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동기나 경향성에서 행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유덕한 사람이 할 법한 것을 행하는 것은 특정한 행위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동기나 경향성에 의해서 행동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덕 윤리에서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은 적절한 경향성과 동기가 수반된 행동이어야 한다. 우리 스스로가 그 상황에 적합한 유덕한 경향성에 따라 행동하지

14) Justin Oakley, "Variety of virtue ethics," *Ratio* IX 2(1996), 135.

않는 한, 덕 윤리의 옳은 행위 표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 덕 윤리는 옳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동기나 경향성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정의의 덕을 가진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기 위해서는, 빚을 갚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향성과 동기를 가지고서 빚을 갚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유덕한 경향성을 갖는 것은 탁월함에 대한 규범적인 표준을 가지며, 자신의 동기와 행동을 그 표준과 순응시켜 내적으로 체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정의 덕을 갖기 위해서는 우정을 가진 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동기와 행위가 그런 관계에 적절한 것인지에 관한 적절한 규범적 개념을 가져야만 한다.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까지 자신의 동기와 감각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우정의 덕을 드러낸다는 것은, 우정 그 자체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친구인 그 사람 그 자체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에는 자신의 친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에 근거하는지, 그리고 어떤 행위가 친구의 행복을 증진시킬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유덕한 행위자는, 의식적으로 형식화되고 적용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자신들의 동기와 행위를 형성하고 통제하는, 규범적 경향성을 가질 것이다.

## VI. 덕 윤리 비판에 대한 반론

유덕한 행위자가 할 법한 행위를 하라는 주장을 근간으로 형성된 덕 윤리는, 자신들의 주장에 의해 여러 장점을 가지는 반면에, 다른 윤리 이론가들이 비판하기 좋은 단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더구나 덕 윤리에 제기되는 많은 비판은 주로 덕 윤리가 규범 윤리가 될 수 있는지를 의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따라서 덕 윤리가 온전한 윤리 이론으로서

규범적 특성을 갖는 이론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덕 윤리에 제기되는 비판들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이다.

본 논의와 관련하여, 덕 윤리에 제기되는 비판을 잘 지적하고 있는 사람은 라우던[15]이다. 그는 덕 윤리의 규범성과 관련하여 덕 윤리의 난점을 두 가지 제시하고 있다. 첫째, 덕 윤리는 행위보다는 행위자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특정한 도덕적 지침을 제공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둘째, 도덕적으로 유덕한 사람의 행위에서 비극적 결과가 생겨날 수 있다고 말한다.

첫째, 덕 윤리가 말하는 덕 개념이나 유덕한 행위자가 옳음의 표준이 되기에는 충분하거나 분명하지 않아서 윤리적 지침을 제공할 수 없다면, 윤리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기에는 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점은 프라즈의 말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 있다.

> 내가 거절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해가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할지라도, '환경오염에 반대하기 위해 파업ecotage'을 [권고]하는 단체에 가입해야하는가 아니면 가입을 거절해야하는가? 환경 덕 윤리가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를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것이 대답될 수 없다면, 도와야 한다는 정당한 요구에도 대답할 수 없다.[16]

더구나 덕 윤리가 행위 지침을 위해 '유덕한 행위자가 할 법한 것을 행하라'는 주장은 옳은 행위는 유덕한 행위자가 할 법한 것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이 있다. '행위자가 유덕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만약 옳은 행위를 실천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유덕한 사람인지가 결정된다고 주장한다면, 덕 윤리의 주장은 순환의 오류를 범하고 만다. 그러나 덕 윤리는 유덕한 성품은 옳은 행위에 의해

15) Robert Louden, "On Some Vice of Virtue Ethics,"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21(1984), 227-236.

16) Geoffrey B. Frasz, "Environmental Virtue Ethics: A New Direction for Environmental Ethics," *Environmental Ethics* 15(John Muir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tudies and University of New Mexico, 1993), 262.

결정되며, 유덕한 성품에 의해 옳은 행위가 결정된다는 순환적 주장을 하지 않는다. 덕 윤리에 의하면, 유덕한 성품은 인간의 번영 그리고 훌륭함과의 관련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또한 '유덕한 사람이 할 법한 것'이라는 지침은 여러 영역에서 성공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한 영역에 참여한 신참내기는 그 영역에서 오랜 동안 숙달된 경력자의 지시에 따라 행하며, 경력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도 그가 할 법한 행위로 추정되는 행위에 따르며, 이런 주장을 통해 자기 행위를 정당화한다. 법정에서 과실의 책임을 물을 때 사용하는 방식은 덕 윤리적 방식을 강화한다. 왜냐하면 법정에서 태만한 사람의 과실을 결정할 때, 합리적인 사람이 할 법한 것을 표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덕 윤리가 여타의 윤리보다 행위 결정력에 있어서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유덕한 성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보다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보다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유덕한 성품이 가진 여러 성품 중에서 어떤 성품이 그 상황에서 행위를 결정하게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도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비록 덕 윤리가 행위 결정력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덕 윤리는 나름대로 유덕한 행위자가 특정한 상황에서 행한 것, 그리고 행할 것에 관한 유력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설명이 그 상황에서 옳은 행동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환경과 관련하여 유덕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환경과 관련하여 어떤 행위가 옳은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에 대해 의도적으로 말하려 하지 않고, 다만 자신들이 환경에 갖는 경향성을 구체화하는 삶을 예로 보여줄 뿐이다.[17]

다른 한편으로, 덕 윤리는 유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할 것인지에

17) Geoffrey B. Frasz, "Environmental Virtue Ethics: A New Direction for Environmental Ethics," 261-262.

대한 단지 하나의 설명만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덕 윤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한 상황에서 한 행위만이 아닌 두 행위 모두 옳을 수 있다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즉 의무에 따라야 하는 행위와 우정에 따라야 하는 행위가 동시에 제시되는 경우에 이 두 행위 모두 옳을 수 있다는 것을 허용한다.

두 번째 비판의 핵심은, 유덕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때때로 유덕한 성품 때문에 그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유덕한 사람의 행위에서 비극적 결과가 도출된다는 지적은 환경 덕 윤리에도 큰 문제점으로 제시될 수 있다. 왜냐하면 유덕한 사람이 그가 가진 덕 때문에 그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은 덕 윤리가 승인될 수 없는 윤리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환자를 사랑하는 의사는 말기 암환자의 진단 결과를 환자에게 알려주기를 꺼려한다. 그리고 그 환자의 가족을 환자를 속이는 일에 가담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궁핍한 사람에 온정적 성품을 가진 한 가족의 가장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여 자기 가족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 있다.

이렇듯, 유덕한 사람들이 유덕한 성품에 의해 그른 행동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유 덕한 사람이 행할 법한 행위를 하라'는 덕 윤리의 지침에 강한 의심을 보이는 것은 합당해 보인다. 그러나 덕 윤리학자는 덕 때문에 잘못된 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덕 윤리는 한 행위가 유덕한 것은 그 행위자가 선한 동기나 경향성을 가지고서 덕이 명령하는 바를 해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덕 윤리에 따르면,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죽게 하면서 말기 암환자의 암 진단에 대해 말해주기를 꺼리는 것은 실제로 선에 의한 행동이 아니다. 한 인간의 삶의 의미와 그 삶을 통한 자기실현을 방해하는 행동은 선에 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선한 성품과 태도를 보이면서도 잘못된 사실에 의거한다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덕한 사람'들이 복잡한 상황에 접하여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경우는 많다. 그러나 지식이 잘못 사용되면 해악을 가져온다고 해서 그 지식이 나쁘거나 필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상대성 이론이 인류를 위협하는 무기 생산에 일조했다 할지라도 상대성 이론의 발견과 이를

숙지하는 것은 항상 바람직하고 온당하다. 마찬가지로 겸손의 성품이 경우에 따라서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도 그 성품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다만 행위 결정력이 없다는 비판만이 제시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행위 결정력에 대한 비판은 앞선 논의에서 해명된 것으로 충분할 듯하다.

## Ⅶ. 결론

최근 덕 윤리는 칸트주의와 공리주의 윤리 이론에 대한 합당한 대안으로 자신의 자리를 확립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덕 윤리는 전통적 관점에 내재한 심각한 결점을 부각시켰다. 그리고 도덕 심리학, 정치철학, 응용윤리학과 같은 영역에 신선한 관점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덕 윤리가 규범 윤리의 주도 세력이었던 칸트주의와 공리주의의 약점을 파헤치면서 윤리학 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덕 윤리의 핵심 특징이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지는 못하다. 이것은 덕 윤리의 가치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불가능하게 한다. 또한 덕 윤리가 규범적 성격을 결여하고 있다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실 덕 윤리의 핵심적인 특징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덕 윤리가 산발적으로 논의되고 제시되어 보다 체계적인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본 논의에서는 산발적으로 다양하게 제시된 덕 윤리의 특징들을 칸트주의 그리고 공리주의의 특징들과 비교하면서, 덕 윤리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또한 덕 윤리의 핵심적인 특징을 통해 덕 윤리가 칸트주의나 공리주의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해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덕 윤리가 칸트주의와 공리주의의 변형된 형식에 의한 윤리 이론들과 다르다는 점도 또한 논의하였다.

## 참고문헌

윌리엄 프랑케나, 황경식 옮김(2003), 『윤리학』, 철학과현실사.

Anscombe, G.E.M.(1958), "Modern moral philosophy," *Philosophy* 33(January).

Foot, Philippa(1978), "Morality as a System of Hypothetical Imperatives" in *Virtues and Vices and Other Essay in Moral Philosoph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Frasz, Geoffrey B.(1993) "Environmental Virtue Ethics: A New Direction for Environmental Ethics," *Environmental Ethics* 15, John Muir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tudies and University of New Mexico.

Herman, Barbara(1993), *The Practice of Moral Judg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Louden, Robert(1984), "On Some Vice of Virtue Ethics,"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21.

Oakley, Justin(1996), "Variety of virtue ethics," *Ratio* IX 2(September).

Railton, Peter(1988), "Alienation, Consequentialism, and the Demands of Morality" in *Consequentialism and its Critics*, ed. Samuel Scheffler, Oxford Univeristy Press.

Trianosky, Gregory(1990), "What is virtue ethics all about?"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Vol. 27, No. 4.

【Abstract】

After G.E.M Anscombe insisted Aristotle's ethical terms like Good and trait of character should be to matter of common central interest of moral philosophy, virtue ethics was given attention. but still virtue ethics was not explained systematically. This paper takes aim at explaining a peculiarity of virtue ethics. For this purpose, first, causes of re-appearance in interests of virtue ethics is investigated. and the two types, positive method and negative method which present the characteristic of virtue ethics would be discussed. Through this discussion, we can distinguish the difference between the characteristic of virtue ethics and the characteristic of Kantian ethics and utilitarianism. Also it is enquired whether the critics on virtue ethics is justified or not, and I try to present some answer on this critics. I prove this critics seems to be not justified.

【Keywords】 virtue ethics, duty ethics, Kantian, utilitarianism

논문 투고일: 2010. 08. 23
심사 완료일: 2010. 10. 05
게재 확정일: 2010. 10. 11